

 부산국제금융진흥원	보도참고자료			
	보도	배포 즉시	배포	2022. 9. 29.(목)
담당부서	금융정책실 금융연구실	실장 박영호 (051-631-0281) 매니저 김진건 (051-647-9052)		

-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의 비전 실현을 위한 금융중심지 포럼 개최 -

제3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최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김종화)은 9. 29.(목) 오후 2시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(BIFC 39층)에서 ‘부산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규제 방향과 디지털 금융혁신 허브 부산’이라는 주제로 제3회 「부산 금융중심지 포럼」을 개최했다.

< 제3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 개요 >

- 주관 : (사)부산국제금융진흥원
- 일시/장소 : 2022. 9. 29.(목) 14:00~17:00 / 한국예탁결제원 대회의실(BIFC 39층)
- 주요 참석자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사원기관(부산광역시·한국거래소·한국예탁결제원·한국자산관리공사·한국주택금융공사·한국해양진흥공사·BNK부산은행·기술보증기금) 실무 전문가, 학계 및 업계 인사 20인 내외
- 주제 발표 : ①부산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육성적 제도 및 규제의 방향, ②차세대 디지털 금융혁신 허브 : 부산을 위한 제언

- 부산을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, 과제를 재정립하고 체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「부산 금융중심지 포럼」에는 입법·행정 및 감독기관과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하며, 금번 제3회 포럼에는 주로 금융산업 규제 개선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여명 패널의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.

□ 부산대학교 경영학부 이장우 교수의 ‘부산금융중심지 비전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육성적 제도 및 규제 방향’에 대한 발제와, 前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장 최공필 박사의 ‘차세대 디지털 금융혁신 허브 : 부산을 위한 제언’에 이어, 박병원 전은행연합회 회장의 주재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.

□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김종화 원장은 금번 제3회 부산금융중심지 포럼에서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,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방향 등에 관하여 부산의 실정에 적합한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, 금년 말 개최될 제4회 포럼에서는 그간 논의 내용을 정리한 소책자도 함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

[사진]



제3회 부산 금융중심지 포럼



일시 | 2022. 9. 29. (목) 14:00 ~ 17:00

장소 | 한국에탁결제원 대회의실(BIFC39층)

 부산국제금융진흥원



Bank

